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건강과 신앙생활

성경: 잠언 4장 14-23절

Tag:

14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16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17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18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20 내 아들이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22 그것은 언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4:14-23)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정도로 세계적인다. 물론 가장 비싼 최고급 수준은 당연히 미국이겠지만, 국민에게 매우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나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물론 의료진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기타 유럽의 여러 훌륭한 나라들도 있지만, 너무 제도적이어서 의사들의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빠른 시간 안에 진료와 치료를 받기 원한다면 한국이 좋다. (서비스가 빠른 만큼 빨리 낮은

것이 아닌가? -빨리빨리 문화의 결과)

그렇다고 의사나 간호사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간호사의 이직률은 타 직종 비교 3배나 많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최고의 긴장 상태에서 고강도 육체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식, 정신,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그렇다고 고질병이나 중증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최고는 아니다. 단순한 감기나 누구나 잘 걸리는 잘 알려져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만, 그 이상은 결국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르다. 즉, 대중적인 질병에 한해서 서비스가 좋다. 난치병에 대해서는 복불복이다.

미국은 보험제도가 마땅치 않아 보통 이빨도 집에서 뽑는다고 한다. 유럽의 경우는 감기 걸렸다고 병원을 찾지는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수도권만 좋지, 지방은 매우 불편하다. 그나마 하루만에 서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서울 나들이를 한다.

문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다. 간혹 실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지방에서는 응급환자에게 불리하다.

결국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훌륭하다고 마음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 유사시에는 병원을 이용해야 하지만, 되도록 각자가 의학 상식을 잘 익히고, 자신의 체질을 잘 관리해서 심각한 질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필수적 점점이다. (결국 단계적 진료가 효과적이다.)

모두 건강하시라~

요즘은 유튜브의 발달로, 의학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불과 얼마전에 유행하던 상식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가 많다. 몇 년전에는 저탄고지가 유행했는데, 며칠전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고루 고

루 섞인 음식이 최고란다.(한국인 미국의사-최근 연구 소식을 알리는 역할)

(의학지식 + 운동을 비롯한 건강 지식 + 체질에 관한 음식 지식과 경험 등=이 세가지 정보가 서로 잘 융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

음식의 종류 또한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제각각이란다.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바람직한 식습관을 익혀야 한다. (요즘 나는 올리브유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다.)

건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관심이 많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도 많다. 그렇다고 성경이 의료전문서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건강에 관심이 많을까? 그것은 건강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이 곧 구원은 아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도 아니다.

질병은 의료적 정보만 담고 있지 않다. +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으며 + 개인적 취향, 가계의 전통, 더 정밀하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질도 포함되어 있고, + 영적인 상태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의학적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습관, 개인적 취향, 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는 것이 건강이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 명철에 관한 말씀이다. 결론은 오직 그것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선약간에 선을 택해야 한다.

선한 사람은 겸손하고, 악한 사람은 오만하다.

선한 사람은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악한 사람은 뻔뻔하다.

선한 사람은 회개하고, 악한 사람은 변명한다. (기타 등등 성경에는
-특히 잠언- 수많은 비교가 있다.)

문제는 세상에는 온전히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

선한 사람도 가끔씩 오만하고, 뻔뻔하고, 변명하고, 몰래 악하다는
것.

악한 사람도 가끔씩 자비를 베풀고, 선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것
을 자랑한다.

또 악한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서로 몽치고, 서로 악하다는 것을 통
해서 동족의식을 가지며, 심지어 자기 무리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악한척을 하기도 한다.(이것은 선한 자들도 마찬가지)

다만, 악의 결과로 남겨진 것은 죄로 인한 악한 영향력과 죄책감이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나 지
구의 멸망을 예측하게 된다. 대부분 환경론자들. 너무도 뻔한 시나리
오다. 지구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결국에는 화성에 가서 살든지,
우주선을 타고 깊은 잠을 자면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나기까지 우
주를 떠돌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오직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이 세상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신다. 비
록 천재지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악 때
문에 인류나 우주를 파괴시키시는 분은 아니시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와 저주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완
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

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벌을 대신 감당하셨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한다. 교회는 세속에 대항하는 요새이고, 죄악에 대항하는 참호이며, 죄악도시에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 평온하며, 편안하며, 안정되고, 건강하며, 부유하며, 만족스럽고, 안전하다.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쾌락을 준다고 속이지만, 그 쾌락은 거짓이며, 마약처럼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미련한 짓의 결과이며, 울타리를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늑대들의 사냥감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남을 속이며 빼앗아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곧바로 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질병은 삶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질병이라는 증상은 삶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선악을 구별하는 시험지며, 건강을 구별하는 시험지며, 정신과 사상을 구별하는 시험지다.

질병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삶과 행동과 정신과 영혼을 점검한다.

건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선이나 악이 원인이 되어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선한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악한 것도 질병의 중요한 요인이란 뜻이다. 이 말은 모든 질병은 악인에게만 발병한다는 뜻도 아니다. 선한 사람도 직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고, 악인도 건강관리 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할 수 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의 기본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라.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종을 불러 안수를 받으라. 그러면 치료가 속할 것이고, 삶이 정상을 찾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은 평안을 회복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거꾸로 치는 천둥 성경: 시편 86편

Tag:

1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필요함. 나는 정말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2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준비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경건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준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 보존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에 노략 당하지 않도록, 비난 받지 않도록.

3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오래 기다림

4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5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사죄를 갈망함. 회개하는 심령을 축은히 여기심.

6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8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9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10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니이다

11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 주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13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4 하나님이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5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니시오니

16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86:1-17)

-조지 허버트의 시

기도는 교회의 잔치, 천사의 시대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쉽게 풀어진 심령, 순례에 나선 마음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

전능하신 분께 몇서는 병기, 죄인의 요새

거꾸로 치는 천둥,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옛새간의 세상을 한 시간 안에 바꿔 놓는 변화
만물이 듣고 떠는 선율 같은 것
너그러움과 평과, 기쁨, 사랑 그리고 축복
고귀한 만나, 더 없이 큰 환희
일상에 깃든 하늘나라, 잘 차려 입은 인물
은하수, 파라사이스의 새
별들 너머로 들리는 교회 종소리, 영혼의 피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 몇 가지 알려진 것.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 - 칼 바르트

기도는 보편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기도는 명상을 통한 내면 탐구인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인가?

-타 종교의 기도는 자신과 신과의 경계를 허무는 쪽으로 향한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더 확실한 관계 정립으로 향한다.

-기도는 신비가 아니라 선명한 대화다. 기도의 결과로 사명이 남는다.

-기도는 불안에서 확신으로, 무분별에서 정돈으로, 비워짐에서 채워짐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방향성이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훗 필드, 아들이 태어나자 감동이 강하게 와서 하나님이 장차 이 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설교 함. 생후 4개월이 지난 어느날 요한은 돌연히 죽었다. 불쑥 떠오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지 말라.)

-기도는 마술이나 주문이 아니다.

-성경 구절 한 말씀이 오직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우기지 말라.

